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며

본 36호의 주제 “밀레니엄 전환기의 문화이론”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즈음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문화 흐름을 파악하고 그 성격을 분석한 후 이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를 헤아려 본다는 의도로 설정되었다. 신앙과 제반 학문을 통합하는 바람직한 방식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본 저널의 기본 관심이기 때문에, 현재 각 학문들이 형성해 가고 또 그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문화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짚어 보고, 이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 흐름 안에서 거슬러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김봉군 교수의 주제논문 “밀레니엄 전환기의 문화이론 비판”은 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현대의 문화이론의 특징들(혼합적 문화론, 이미지 생산과 과실재 이론, 쌍방 소통과 가상 현실론, 수평적 다문화 이론, 해체의 문학과 문화론적 문학이론)을 소개한 후 그 문제점들(절대적 가치와 일률성의 붕괴, 실재의 왜곡, 윤리적 아나키즘)을 설

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밀레니엄 전환기의 문화이론을 포스트모던 문화이론과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밀레니엄 전환기의 문화이론이 지나는 이상의 여러 결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크리스천 지식인, 문화인들에게 말씀의 진리 복원에 공헌할 ‘창조적 문화 이론’의 개발을 위해 세속 문화 이론가들과의 ‘선교적 대화’와 ‘선한 싸움’이 요청” 된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전광식 교수의 논문 “전환기의 세계관과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은 현대인의 지금과 같은 인생관과 세계관의 배경이 된 20세기 문명에 대한 평가와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 과학의 발달로 많은 것을 획득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 자신을 잃게 된 인간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인생관인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저자는 설득력 있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 인류는 세기말이라는 상황에서 신비주의적 종말론에 심취하고 있지만, 모든 인류는 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김대현 교수의 논문 “새천년의 기독교 문화와 연극”은 그 목적이 “새로운 천년에 즈음한 기독교 문화와 연극의 미래상과 그 당위적 관계를 모색해 보는 것”이라고 저자는 들어가는 말에서 밝히고 있다. 저자는 특별히 열린 예배의 한 구성요소로써 연극을 도입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기존 연극의 부정적인 요소들(보이는 것에 대한 강조, 볼거리를 통한 유인, 자기현시 욕구의 충족)을 지적하면서 ‘보이지 않는 연극’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가 논문에서 강조하는 ‘보이지 않는 연극’이란 기존의 전통적인 연극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요소들, 즉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과 관객에게 볼

거리의 제공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제거한 연극을 의미한다.

일반논문으로 오홍철 님의 “1907년 기독교 대부흥운동의 역사적 고찰”은 대부흥운동의 시대적 배경(당시의 정치적 상황, 평안도 지방의 사회·경제적 상황, 무력해진 당시의 기존 종교들, 선교사들이 지녔던 신학사상), 전개과정, 결과 및 그 영향(당시 교계에 미친 영향,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한 글이다. 특히 저자는 대부흥운동과 애국계몽운동, 3.1운동 등과의 관계를 참여계층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한국 교회가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애국교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서평으로는 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명균 님이 두 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새천년 시대와 기독교 문화』(김영사),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IVP)이다. 앞의 책 『새천년 시대와 기독교 문화』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기독교문화를 형성해 보고자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을 엮은 것으로, 본 지의 성격과 잘 맞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관심있어 하는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일군의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보수 개혁주의 신학자의 기독교 문화론을 담은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은 우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는 책으로 기독교 문화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 이 두 권의 적절한 균형은 기독교 문화 예술 일반에 대한 생각들이 중심을 잡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호의 귀한 글들을 통하여 소란스럽게 방황하며 흘러가는 현대문화를 정결케 하는 소망이 기독교에만 있으며, 또한 여러 분야에서 신

양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동역자의 시도들이 건실히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2000. 5. 10.

편집인 전 진 우